

# 구한말 왕실소장 일본미술 서적의 조사 및 연구

황빛나

## I. 머리말

### 黃빛나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겸임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문학박사  
동아시아 근현대미술사

본 연구는 구한말 조선 왕실소장 일본판 도서에 대해 왕실 서목(書目) 내 기록을 바탕으로 소장 현황을 파악하고, ‘고종’, ‘개화’, ‘미술’, ‘지식·문화 중심 이동’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미술’ 서적이 갖는 자료적 특성과 시대적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 것이다.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이하 장서각),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하 규장각)과 국립중앙도서관에는 조선 왕실이 소장하던 고전적(古典籍)을 조사하고 기록한 80여 종의 서목이 남아 있다. 이 가운데 30종은 고종(高宗) 연간부터 대한제국기에 걸쳐 작성되었으며, 나머지는 한일강제병합 이후 조선총독부가 조선 왕실의 자료를 넘겨받아서 전국 단위의 도서 조사와 정리 사업을 본격화한 1910년대에 집중적으로 발간되었다. 그간 서목을 기초로 조선 왕실소장 고전적에 대해 서지학 분야뿐 아니라 역사, 문학 및 미술사 학계에서 다양한 연구를 진행했으나, 연구 대부분이 조선 및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5B5A01036267).

\*\* 필자의 최근 논저: 「진경의古와 今: 근대기 사생과 진경 개념을 둘러싼 혼성과 변용 문제」, 『미술사논단』48, 2019; 「현모양처의 탄생 이후, 이미지는 어떻게 여성의 삶을 통제해 왔는가?-이성례」, 『담론과 이미지로 본 현모양처의 탄생』(역락, 2018), 『한국문화연구』36, 2019.

당판(唐版) 중국 도서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달리 일본판 도서들은 극히 일부 서목에만 일본서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발행처가 표시되어 있어서 그간 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종합목록조차 작성되기 어려웠다.<sup>1</sup> 또한 장서각, 규장각, 국립중앙도서관 등지에 분장(分藏)되어 있어서 전수 조사 역시 이루어지지 못했다.

기록으로 확인이 가능한 조선 왕실소장 일본판 서적의 규모는 1914년 이왕직에서 작성한 『이왕가도서실장서목록(李王家圖書室藏書目錄)』을 기준으로 676부 9,571책<sup>2</sup> 정도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국내에 남아 있는 서적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본 1,207종만 파악할 수 있는데, 이는 1993년에 발행된 『장서각도서일본판총목록(藏書閣圖書日本版總目錄)』을 토대로 한 것이다. 이들 일본판 도서는 중국판 및 한국판 도서에 비견하면 전체의 약 20% 정도로 비중이 작지만, 총 1만여 책에 가까운 규모를 고려하면 간과할 수 없는 자료이다. 그런데 현재 장서각과 규장각에서 발간한 도서목록은 한일강제병합 이전 조선 왕실의 장서와 일제강점기에 추가로 구입하거나 기증받은 도서들이 통합되면서 도서 발행 시기만으로는 수집 주체와 수장 이력을 파악하기 어렵다. 1911년 조선총독부가 규장각을 포함한 전국의 왕실도서를 넘겨받은 후 참서관분실을 통해 조사 정리한 『다이쇼(大正) 2년 12월 일본판도서목록』(1913)에는 일본판 도서 종수가 154부 512책이었다. 하지만 1년 후인 1914년 이왕직이 주도하여 작성한 『이왕가도서실장서목록』에는 부수 기준으로 4배 이상 증가한 676부 9,571책이 내록(內錄)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차적으로 일제강점기 이전 조선 왕실이 수장한 도서와 국

- 
- 1 1993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시기 장서각에 소장된 일본판 도서들을 대상으로 조사·정리한 『장서각도서일본판총목록』이 유일하며, 같은 기관에서 펴낸 1997년 『장서각도서해제』에 일부 일본도서 자료가 소개된 바 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장서각에서는 2018년부터 내부자료 전수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일본판 도서에 대한 재조사와 해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조선 왕실에 소장된 고도서 중 일본판 고전적에 대한 학술연구는 상대적으로 성과가 빈약한데다가, 대부분이 기초자료가 확보된 장서각 소장본에 치중되어 있다. 조선 왕실소장 일본판 고서에 대한 선행 연구로는 1997년 장서각 도서 해제집 발행 시 일본판 도서의 해제자로 참여한 조문희, 「조선물어(朝鮮物語)」 추보, 『日本語文學』3 (1997); 이혜정, 「장서각 소장 일본 고서의 서지적 분석」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이민주, 「장서각 소장 복식관련 일본서의 현황 및 가치-『면복도첩』을 중심으로」, 『장서각』42 (2019)이 있다. 그 외 규장각 자료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황정연, 「高宗年間(1863-1907) 宮中 書畫收藏의 전개와 변모양상」, 『美術史學研究』259 (2008); 황정연, 「고종연간 집경간의 운용과 궁중 서화수장」, 『문화재』40호 (2007)가 있다.
  - 2 일본판 도서의 수량은 서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해방 이후 구황실재산사무총국이 폐지되고 문화재관리국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작성된 1961년 『도서목록(중국판·일본판·양장판)』에는 일본판 도서의 수량이 981부 9,702책으로 기록되어 있다.

권 피탈 후 조선총독부의 문화정책을 토대로 수집·기증받은 도서의 구분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한일강제병합 이전인 1880년대부터 1910년까지 발간된 30여종의 왕실 서목에 수록된 도서들 가운데 먼저 일본판 도서들을 추출하고 목록을 작성했다. 이를 토대로 '미술 서적'으로 대상화할 수 있는 자료들을 선별했으며,<sup>3</sup> 이 가운데 특히 일본판 미술 서적들이 고종 재위 연간(1864~1897)부터 대한제국기 사이에 다수 왕실로 유입된 배경과 특성을 추적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연구에서는 주목하지 않았던 『규장각서목(奎章閣書目)』과 『내각장서휘편(內閣藏書彙編)』(장서각 소장)의 「신내하(新內下)」에 포함된 『장기추형(匠家雛形)』을 비롯한 일본 공예 및 기술 관련 도보(圖譜) 16종이 1880년 2차 수신사(修信使)로 파견된 김홍집(金弘集, 1842~1896) 일행이 일본 측에 부탁한 서적을 변리공사(辦理公使)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實, 1842~1917)를 통해 같은 해 12월 인계받은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현재 발간 시기에 대해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는 『규장각서목』 3본의 발행 시기와 순서를 가늠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도 제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II. 서목으로 본 19세기 이후 조선 왕실의 일본도서 수장 현황

고종은 1866년 신정왕후(神貞王后, 1808~1890) 조대비가 철렴(撤簾)한 이후에도 지속된 흥선대원군의 섭정을 1873년 11월 서무친재(庶務親裁) 선언<sup>4</sup>으로 종결하며 왕권 강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떠나간다. 고종의 재위 기간에 해당하는 1863년부터 1907년 사이에는 표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초기부터 규장각을 중심으로 서목 편찬 작업이 매우 활발히 추진되었다. 세부적으로는 고종의 재위 전기에 해당하는 1860~1870년대, 개화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1880년대, 재위 말기에 해당하는 1907년부터 1910년 사이 세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고종의 재위 기간 전후

3 분석 대상으로 삼은 '미술 서적'의 범위는 이 시기 '미술' 개념이 유입되며 제도화가 이루어지는 이행기라는 상황을 고려했다. 전통 서화류에서 확장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자부(子部)의 예술, 보록(譜錄)류와 잡류에 포함된 화보(畵譜), 인보(印譜), 도감(圖鑑) 및 화론서를 연구 대상에 포함했다. 지면의 한계로 인해 지도류 및 다수의 삽화가 실린 경부의 역사서와 소설류는 이번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4 고종 10년(1873) 11월 5일자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에는 고종이 11월 4일 밤 서무친재를 선언하고 이를 조지(朝緋)로서 반포할 것을 명령했으나 대신들이 불응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이에 이튿날 대신들을 불러서 이미 대왕대비의 철렴이 선언되었으므로 공포할 필요가 없는 바 반포의 명을 환수하였으며 흥선대원군에게 주었던 권한을 돌려받아 통치 대권을 장악했다.

로 총 30여 종이라는 상당한 수량의 서목이 작성된 데는 단순한 도서 정리의 목적을 넘어 대원군에서 고종, 통감부로 권력 이동이 빈번했던 구한말의 역동적 정세 변화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sup>5</sup> 실제 이들 서목 내 도서들은 수장 공간이 갖는 고유한 ‘쓰임’ 목적에 따른 차이뿐 아니라 수집 주체의 정치사회적 태도와 관점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sup>6</sup>

표1. 고종 연간-대한제국기 왕실 서목<sup>7</sup>의 일본서 수록 현황

번호	자료명	생산기관명	작성 시기	현재 소장처	청구번호	비고	일본서 포함 여부
1	보문각책목록 (寶文閣冊目錄)	미상	미상 (순조~고종재위 초기)	규장각	奎11617		×
2	승화루서목 (承華樓書目)	궁내부	미상 (현종~고종 재위 초기)	규장각	奎9875 ~9878		○ (墨譜, 서화 有)
3	승화루서목	궁내부	미상 (현종~고종 재위 초기)	장서각	K2-4651		○ (墨譜, 서화 有)
4	이문원서목 (摛文院書目)	규장각	고종 재위 초기	장서각	K2-4657	규장각서목 a	×
5	열고관서목 (閱古觀書目)	규장각	고종 재위 초기	장서각	K2-4654	규장각서목 a	×
6	서고서목 (書庫書目)	미상	고종 재위 초기	장서각	K2-4963	규장각서목 a	×
7	규장각서목 (奎章閣書目)	규장각	1880 이후	규장각	奎11670	열고관서목 포함	○ (화보, 화론서 有)
8	규장각서목	규장각	1880 이후	규장각	奎11706	누상(樓上), 누하(樓下) 로 나누어 기록함	○ (樓上 北10織 多)
9	규장각서목	규장각	1907	장서각	K2-4636		×
10	내하고서목 (內下庫書目)	미상	고종 연간	장서각	K2-4638		×
11	내각장서휘편 (內閣藏書彙編)	규장각	1880 이후	장서각	K2-4637	‘신내하서목 (新內下書目)’ ‘춘안당서목 (春安堂書目)’ 포함	○ (화보, 화론서 有)
12	내하책자목록 (內下冊子目錄)	미상	1884경	장서각	K2-4960		○ (개화서적, 일본서 多)
13	신구입서적목록 (新購入書籍目錄)	궁내부	1910 이전	규장각	奎25269		○
14	학부편집국서책목록 (學部編輯國書冊目錄)	학부 집국 (學部 輯局)	고종 연간 (1895 이후)	규장각	奎11554		○ (일본사, 기술서 多)

- 고종이 대원군의 실정 이후 단행한 개화 서적 수집 및 규장각의 장서 정리와 서목 작성은 규장각 기능의 회복을 통해 왕권 강화를 이루려는 정치적 고려가 강하게 반영되었다는 관점은 연갑수, 『고종 초중기 (1864~1894) 정치변동과 규장각』, 『규장각』17 (1994), pp.59-74 참조.
- 예를 들어 고종의 재위 초기 대원군이 주도한 이문원(摛文院), 열고관(閱古觀), 문헌각(文獻閣) 등의 도서 조사 및 서목 편찬 작업은 자료의 정적인 ‘통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한편 고종의 친정 이후 추진된 규장각 서목 발간은 개화 서적을 포함한 신자료들의 ‘관리’와 ‘활용’을 통한 왕권 강화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고종 연간 궁실 전각의 공간적 성격에 대해서는 황정연, 앞의 논문, pp.87-89 참조.
- 본 표는 필자가 현재 장서각, 규장각 및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서목들을 정리, 종합하여 만든 목록이다. 목록 내용 중 생산 기관과 간행 시기 등의 정보는 현재 통일되지 않은 관계로 각 소장처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음을 밝혀둔다.



번호	자료명	생산기관명	작성 시기	현재 소장처	청구번호	비고	일본서 포함 여부
15	홍문관책목록 (弘文館冊目錄)	홍문관	1906	장서각	K2-4673		×
16	규장각누상하고책목록 (奎章閣樓上下庫冊目錄)	규장각	1907~1910	장서각	K2-4634	규장각서목 (奎11670)과 내용 유사함	○
17	규장각도서과장서목록 (奎章閣圖書課藏書目錄)	규장각도서과	1908	장서각	K2-4635		○ (일본사, 보고서, 화보, 화론서 有)
18	집경당포쇄서목 (緝敬堂曝曬書目)	미상	1868~1910	규장각	奎11704		○ (화보, 화론서 有)
19	집옥재서적목록 (集玉齋書籍目錄)	궁내부	1907~1910	장서각	K2-4667		○ (화보, 화론서 有)
20	집옥재서적목록 (集玉齋書籍目錄)	미상	1907~1910	규장각	奎11676		○ (화보, 화론서 有)
21	집옥재목록외서책 (集玉齋目錄外書冊)	미상	1908~1910	규장각	奎11703		○ (東京新聞)
22	포서목록 (曝書目錄)	규장각	1908	규장각	奎11071		○ (일본사, 보고서, 화보, 화론서 有)
23	홍문관서목 (弘文館書目)	규장각	1908	규장각	奎11711		×
24	제실도서목록 (帝室圖書目錄)	규장각도서과	1909	규장각	奎25243-25244		○
25	북한책목록 (北漢冊目錄)	궁내부	1909	규장각	奎26740		○ (조사시찰단보고서 有)
26	조판도서목록 (朝板圖書目錄)	규장각도서과	1908~1910	규장각	奎26725		○
27	당판도서목록 (唐板圖書目錄)	규장각도서과	1908~1910	규장각	奎26771		○
28	별고도서목록 (別庫圖書目錄)	규장각도서과	1908~1910	규장각	古015.51-B991		○
29	조판목록 (朝板目錄)	규장각도서과	1908~1910	규장각	古015.51-J743	조판도서목록 (奎26725)과 동일함	○
30	당판목록 (唐板目錄)	규장각도서과	1908~1910	규장각	古015.52-D218	당판도서목록 (奎26771)과 동일함	○
31	신구입급기부도서목록 (新購入及奇附圖書目錄)	규장각도서과	1908~1910	규장각	古017.1-Si61	★日本/清/朝 판종에 표기됨	○

표1은 고종 재위 기간에 간행된 30여 종의 왕실 장서 목록을 장서각과 규장각, 국립중앙도서관의 아카이브를 활용하여 기본적인 서지 정보를 확인·정리하고, 일본 서적의 포함 여부를 간단히 표시한 것이다. 목록 가운데 1~3번 서목은 제작 시기를 특정할 수 없으나 하한선을 고종 재위 초기까지로 볼 수 있다. 특히 고종 재위 이전인 순조에서 현종대에 수집된 장서들의 일면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후의 지도, 기술서, 양서(洋書)와 같은 중국과 일본의 개화 서적이 다수 포함된 『규장각서목』과 좋은 비교가 된다. 4~9번은 이른바 『규장각서목』 3본에 해당하는 서목들로, 수록된 서적은 유사하나 서목 기록 방식에서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특히 5개 서목의 작

성 시기에 대해 아직 학계의 의견이 통일되지 않아서 전모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박현순은 남권희, 연갑수, 옥영정 등의 선행 연구를 종합하여 『이문원서목(摛文院書目)』, 『열고관서목(閱古觀書目)』, 『서고서목(書庫書目)』 3종을 묶어 『규장각서목』 a로, 규장각본(奎11670)을 『규장각서목』 b로, 규장각본(奎11706)과 장서각본(K2-4646)을 합해 『규장각서목』 c로 정리한 바 있다. 문제는 arc 유형의 발행 시기이다. 서목에 일부 기입되어 있는 내입 연도와 서적의 발행 시기를 토대로 a본은 고종 14년(1877)부터 26년(1889) 사이, b본은 1896년부터 1902년 사이, c본은 1909년 『제실도서목록』이 작성되기 이전의 『집옥재서적목록』이 간행될 무렵으로 보았다.<sup>8</sup> 그런데 필자가 여기에 내록된 도서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표1 4~9번의 서목에서 균을 이루어 포함되거나 누락된 일본판 도서 16종을 발견했다. 이 도서들은 모두 1880년 12월 일본 변리공사(辦理公使) 하나부사 요시모토가 김홍집에게 전달한 서적임을 『왜사일기(倭使日記)』 14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sup>9</sup> 당시 하나부사는 2차 수신사로 파견되었던 사신이 거듭 부탁한 ‘공업서적(工業書籍)’ 열여섯 권을 전달했는데, “백공신서(百工新書)(1부), 공업신서(工業新書)(1부), 제작신서(製作新書)(1부), 장가추형(1부), 대공추형(大工雛形)(1부), 잡공추형(雜工雛形)(1부), 증기기관문답(蒸氣機關問答)(1부), 선구운용시험문답(船具運用試驗問答)(1부), 칠공전서(漆工全書)(1부), 일본병기연혁사(日本兵器沿革史)(1부), 공학필휴(工學必携)(1부), 직사공술(織紗工術)(1부), 백공응갑화학(百工應甲化學)(1부), 백공검약훈(百工儉約訓)(1부), 인쇄술급석판술(印刷術及石版術)(1부), 도자공편(陶磁工篇)(1부)”이 그것이다.<sup>10</sup>

이 도서들은 『규장각서목』 a에는 내록되지 않았고, 표1-11번 『내각장서취편』에는 내입된 날짜가 1885년과 1887년 두 번에 나뉘어 신내하 서목에 포함되어 있다. 이에 반해 『규장각서목』 c에는 ‘누상(樓上)’의 북10 서가에 함께, 『규장각서목』 b에는 열고관본에 분산 수록되어 있다. 김홍집이 책을 전달받은 일자와 새로 규장각에 내려

8 박현순, 『『규장각서목』을 통해 본 규장각 장서』, 『한국문화』70 (2015), pp.41-52 참조.

9 『왜사일기』는 고종 12년(1875) 12월부터 고종 17년(1880) 12월까지 수신사를 포함한 조선과 일본의 외교와 사행 관련 자료를 초록한 책으로, 총 14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4책에는 1880년 4월 22일부터 1880년 12월 29일까지 조선과 일본 외교 관계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10 “禮曹參判金弘集閣下 逕啓者閣下曾在東京時貴隨員所屬工業書籍十六種這回工部 卿托本使致贈敢閣下頒付餘付面念不備 明治十三年十二月三十一日 辦理公使 花房義賢(이하 서명 생략)”, 『(庚辰)十二月初六日禮曹參判金宏集閣下』, 『왜사일기』14, 庚辰 12월 6日.

보낸 일자를 고려하면 『규장각서목』 a는 1880년 12월 이전, 『규장각서목』 b와 『규장각서목』 c는 1887년 이후로 시기를 추정할 수 있다. 또한 『규장각서목』 b의 경우 『집옥재서적목록』에 내록된 1895년에 개최된 제4회 내국권업박람회 도록이 7권은 없고, 제2회(1881년) 박람회 자료만 수장되어 있으므로, 작성 시기는 1887~1895년 사이일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서목이 작성된 목록 13~31번에 해당하는 3기는 1907년 고종 퇴위 후 순종이 즉위하고 일본에 의해 관제가 크게 변경되면서 고종 대에 수집한 왕실자료가 분산 유실될 위험에 봉착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실도서관(帝室圖書館)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 작성되었다. 3기의 서목들은 도서관 설립을 위해 재차 집옥재(集玉齋), 춘방(春坊), 북한산 행궁 등에 소재한 전적을 망라하여 정리한 것으로, 통감부와 왕실의 갈등구조 속에서 왕실이 국권 피탈 이전 수집한 전적과 서화의 총체상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상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다음으로는 고종 연간부터 대한제국기까지 왕실이 수장한 일본 고전적의 현황과 그 변화 양상을 고종 재위 이전과 고종 연간 이후로 나누어 좀더 구체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 1. 고종 재위 이전 왕실 장서와 일본 서적

고종 재위 이전인 순조에서 철종 연간 사이 왕실의 장서 수장과 일본판 전적의 수용 양상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료로는 표1-1번 『보문각책목록(寶文閣冊目錄)』<sup>11</sup>과 1-2번 『승화루서목』이 있다. 『보문각책목록』은 제작 연도가 기입되지 않아서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없으나, 서목에 포함된 자료들이 순조 1년(1801)에 간행된 『어정논맹인물유취(御定論孟人物類聚)』, 『서전인물유취(書傳人物類聚)』 등과 같이 순조대 전적을 포함하고 있어서 순조 이후부터 고종 재위 초기에 제작되었다고 추정된다. 그러나

11 목록은 기본적으로 경부(經部)·사부(史部)·자부(子部)·집부(集部) 4부 분류법을 따랐으나, 어제어필(御製御筆) 49종, 어정(御定) 48종을 조두에 따로 적고 나머지는 경부·소학·사부·편년·잡사·사초·전기·장고(掌故)·지리·자부·병가·설가·서화·유취·집부·잡가 순으로 총 281종의 한국과 중국의 문헌을 수록했다. 전체 크기 31.6×20.5cm, 1책 23장(張)의 얇은 서목으로, 각 장 10행에 인판은 상하단 구분 없이 상단에는 서명을 하단에는 발행 국기와 필자 이름을 묵서(墨書)했다. 조선서는 '본조(本朝)'라고 통일하여 표기하거나 생략하고 필자 이름만 적은 반면, 중국서는 당(唐)부터 송, 원, 명, 청까지 왕조명을 구체적으로 적었다.

간행 시기와 무관하게 19세기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왕조들에 대한 조선 왕실의 인식과 장서의 수집 성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sup>12</sup>

내용을 살펴보면 서화류는 총 15종의 전적이 수록되어 있는데 일본서와 조선서로 표기된 것은 없다. 15종 중 다수가 <삼국지도(三國志圖)〉, 《삼강행실도첩(三綱行實圖貼)》, 《경직도첩(耕織圖貼)》, 《명신화상첩(名臣畫像貼)》과 같은 인물화첩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당시화보(唐詩畫譜)』 8권과 작가를 구체적으로 명기한 조맹부(趙孟頫)의 《조자양화첩(趙子昂畫貼)》과 《적벽부서첩(赤壁賦書貼)》 2권이 포함된 점이 흥미롭다. 서목에 조맹부 이외 작가가 중복된 경우 역시 없다.<sup>13</sup> 특별히 조맹부의 서첩과 화첩이 모두 보문각에 소장된 것은 앞선 정조(正祖, 1752~1800) 시기에 한유(韓愈, 768~824), 유종원(柳宗元, 773~781), 구양수(歐陽修, 1007~1072), 소식(蘇軾, 1037~1101) 등 당송(唐宋) 팔대가의 문장을 가장 순정한 것으로 귀히 여겨 『당송팔대가문초(唐宋八大家文鈔)』 중 백 편의 명문을 뽑아 『당송팔자백선(唐宋八子百選)』을 펴낸 사실과 비교할 때, 순조 이후 전범 대상이 원대 이후까지 확장되었음을 보여준다.<sup>14</sup> 그런데 조선 전기부터 ‘호고박아(好古博雅)로 불린 강석덕(姜碩德, 1395~1459)의 아들 강희맹(姜希孟, 1424~1483)이 “일본 승려의 산수화를 구해 와 소장했고,”<sup>15</sup> 조선통신사를 통해 꾸준히 에도 막부의 가노파 화가들이 제작한 병풍과 그림들이 공물로서 왕실에 유입되었음이 기록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sup>16</sup> 하지만 공물 및 조선통신사 등을 통해 들어온 일본의 서화 및 서적 중 왕실에 소장된 장서의 수량과 소장 공간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이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정보를 주는 것이 『승화루서목』이다.

- 
- 12 『보문각책목록』에 대해서는 김동환, 『寶文閣의 變遷과 寶文閣冊目錄』(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웹사이트의 소장도서 해제 <https://kyudb.snu.ac.kr/book/view.do>(2021. 1. 3 검색) 참조.
- 13 작품 제목은 서목에 기입된 대로 ‘첩(貼)’으로 표기했다.
- 14 “昌黎文三十篇 柳州文十五篇 六一文十五篇 老泉文五篇 東坡 文二十篇 穎濱文五篇 臨川文七篇 南豐文三篇 滿百而止 皆所謂醇乎醇者也”, 『群書標記』1, 『서목총간』2, p.955.
- 15 서거정(徐居正), 『사가시집(四佳詩集)』권2, 「강경순 희망이 소장한, 일본의 고승이 그린 산수 팔경에 제하다(題姜景醇所藏日本高僧山水八景希孟)」 참조; 홍선표, 『조선회화』(한국미술연구소CAS, 2014), p.464 재인용.
- 16 『보문각책목록』이 작성된 순조대에도 1811년 신미통신사(辛未通信使) 사행 시 일본이 조선 왕에게 화병풍(畫屏風) 10쌍을, 예조참의대인(禮曹參議大人)에게 금박을 잘라 붙인 ‘침금소병풍(貼金小屏風) 2쌍을 회답 예물로 보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이훈, 「비용으로 본 교린의례(交隣儀禮)」, 『한일관계사연구』38(2011), p.177; 이 외에도 조선 전기부터 후기에 걸쳐 조선통신사를 통해 궁중에 유입된 일본 회화에 대해서는 박은순, 「회화를 통한 소통: 조선에 전해진 일본 회화」, 『미술자료』91(2017) 참조.

『승화루서목』 역시 간행 연도가 기재되지 않아서 제작 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우나, 정조 때 발간된 『규장총목(奎章總目)』(1781)이나 앞서 살펴본 『보문각책목록』과 달리 ‘양화(洋畵),’ ‘월남(越南)화<sup>17</sup>와 같은 새로운 지역의 그림뿐 아니라 일본 서적과 서화도 여러 점 재록(載錄)되어 있다. 『승화루서목』은 현재 장서각, 규장각, 국립중앙도서관(1948년 규장각본을 등사)에 동일한 부분(副本)이 존재한다.<sup>18</sup> 이 서목에는 자료를 ‘經·史·子·集’ 類의 4부 분류 외에 ‘시류(詩類), 문류(文類), 필가류(筆家類), 화가류(畵家類), 인보류(印譜類), 총서류(叢書類), 척독류(尺牘類), 설가류(說家類), 병가류(兵家類), 서첩(書帖), 화첩(畵帖), 서족(書簇), 서횡피(書橫披), 서련(書聯), 서횡(書橫), 화족(畵簇), 화횡피(畵橫披), 화련(畵聯), 화횡축(畵橫軸)’의 총 23개 항목 순으로 분류하였다. 특히 서화류를 장황 형식에 따라 전문적으로 구분한 것이 특징적이다. 서화류의 총수가 687건<sup>19</sup>에 이르러, 현존하는 단일 서목 중에 가장 많은 서화 관련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승화루의 연혁을 살펴보면 현종과 매우 관계가 깊었다. 정조 연간에 동궁(東宮)으로 쓰인 중희당(重熙堂)의 동쪽 행랑에 이어진 건물인 ‘소주합루(小宙合樓)로 불리던 누각을 ‘승화루’로 개칭한 것이 현종이었다.<sup>20</sup> 『현종실록』 부록 「묘지문」에 따르면, 현종은 “평소에 서화를 사랑하여 고금 명가의 유평(遺筆)을 다 내부(內府)에 모아 두시고, 금석(金石)의 유문(遺文)을 고거(考據)하여 사

17 월남과 관련된 자료로는 서목 ‘서족(書簇)’부에 ‘월남완등정역자(越南阮登淸額字)’ 1점이 있다. 조선과 월남국 간의 조공은 현종 6년 전에는 2년에 한 번 공물을 보내고 4년에 한 번 사신을 보내어 조회하였으나, 이후로는 4년에 한 번씩 직접 조공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실록의 기록을 볼 때 서목에 기록된 역자 1점은 사신이 공물로 보내온 것일 가능성이 높다. “舊例越南國二年一貢, 四年遣使來朝, 暹羅三年一貢, 琉球間年一貢, 皇帝特諭嗣後越南, 琉球, 暹羅, 均令四年一次遣使來貢, 用示朕綏懷藩服之至意”, 『현종실록』 7권, 현종 6년 3월 25일.

18 규장각본에는 권수 상단에 ‘제실도서지장(帝室圖書之章) · 총독부도서지인(總督府圖書之印) · 서울대학교도서’ 세 개의 방형주인이 날인되어 있다. 1909년 제실도서실에 수장되었다가 총독부 도서관을 거쳐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된 서목임을 알 수 있다. 장서각본에는 ‘藏書閣印’ 1과만 날인된 것으로 보아 1915년 장서각 설치 전후로 필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19 남권희의 선행 연구인 「承華樓書目考」, 『社會科學研究』 3 (1987)에서는 서목에 실린 총 장서수를 910종 4,555점으로, 필가·화가·인보를 제외한 서화의 점수를 650종 918점으로 밝혔고, 황정연은 장서각 해체에서 총 687건으로 보았다. [http://jsg.aks.ac.kr/dir/view?catePath=&dataId=JSG\\_K2-4651](http://jsg.aks.ac.kr/dir/view?catePath=&dataId=JSG_K2-4651) (2021. 1. 13 검색). 필자의 대조 결과 총 장서수는 950건이며, 필가·화가·인보를 제외한 서화의 점수는 687건이다.

20 규장각이 역대의 어필이나 서화, 도서 등을 보관한 임금의 도서관이었다면, 승화루는 현종대와 고종대를 거치며 세자를 위한 강학 장소 및 도서관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서목에 ‘승화루’를 적은 것으로 보아 간행 시기는 현종 이후로 추정할 수 있다. 이정효, 『『大畜觀書目』과 『承華樓書目』에 관한 考察』, 『서지학연구』 73 (2018. 3), p.44.

전(史傳)에 누락된 것을 보정(補訂)하셨는데 전문하는 숙학(宿學)일지라도 여기에 미치지 못하였다.”<sup>21</sup>라고 기록될 정도로 서화와 금석을 매우 애원했다. 『승화루서목』에 유례 없이 많은 서화 자료가 포함된 것은 승화루가 현종 연간 이후 고종 대까지 역대 왕실의 금석·서화·유문 수장품을 모아 놓은 수장고의 역할도 담당했음을 보여준다.

『승화루서목』에서 확인된 일본 서적 및 서화 작품은 서적 2종 13책과 그림 3점이다.<sup>표2</sup> 일본판 전적 및 서화는 전체 서목 자료의 1퍼센트에 그칠 정도로 수량이 적기에 중국 그림이나 조선 그림처럼 별도로 묶지 않고, 유형에 따라 중국·조선본과 함께 특별한 순서 없이 기재되었다. 표2의 자료 가운데 제목에 ‘일본’과 ‘왜’가 들어간 <일본인묵우도(日本人墨牛圖)>, <왜화(倭畵)>, 《일본황산노인화(日本黃山老人畵)》 세 작품은 남권희의 선행 연구를 통해 존재만 알려져 있었고, 『고매원묵보(古梅園墨譜)』와 『천공개물(天工開物)』은 이번 연구에서 필자가 새롭게 확인한 자료이다. 이 가운데 서화류를 제외하고 조선 후기 조선통신사를 통한 한일간 문물교류의 양상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바로 『고매원묵보』이다. 이 묵보는 현재까지 국내에 소개되거나 연구가 이루어진 바 없는 일본서로, 서목에는 인보류에 중국의 대표적 묵보(墨譜)인 송대 문인 소이간(蘇易簡, 958~997)의 『문방사보(文房四譜)』, 명말 방우로(方于魯)의 『방씨묵보(方氏墨譜)』와 함께 재록되어 있다.<sup>도1</sup>

印譜類	集古印譜	又	印史	寧山堂印譜	紅豆吟館印史	古宜齋印存	知魚樂齋印譜	文房四譜	方氏墨譜	古梅園墨譜	印譜類
	十二冊	五冊	八冊	二十冊	五冊	四冊	二冊	四冊	四冊	四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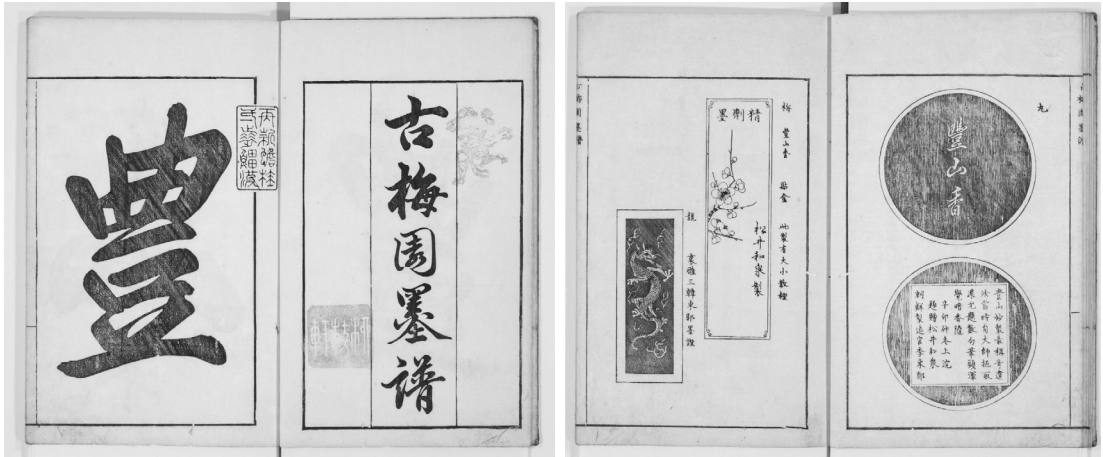
1 『승화루서목』 부분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표2. 『승화루서목』에 기록된 일본 서적 및 서화

분류	자료명	비고
인보류(印譜類)	고매원묵보(5책)	국립중앙도서관(古9-69-70)
설가류(說家類)	천공개물(일본판, 8책)	장서각(3-440)
화족(畵族)	일본인묵우도, 왜화(倭畵)	
화련(畵聯)	일본황산노인그림(1쌍)	

『고매원묵보』는 고매원의 6대 당주인 마쓰이 겐타이(松井元泰, 1689~1743)가 1743년 가내에 전해 오는 고묵(古墨)과 명묵(名墨)을 모아 펴낸 묵보이다. 1742년에

21 “雅愛書畫，古今名家，畢集於內府，考據金石遺文，補訂史傳闕漏，雖專門宿學，莫能及焉”.



2  
 마쓰이 겐타이  
 『고매원목보』내지 1-2면  
 일본 스즈카시문고

3  
 마쓰이 겐타이  
 『고매원목보』환목 부분  
 일본 스즈카시문고

총 4권이 간행되었으나, 1773년 겐타이의 유지를 이어 7대 당주인 마쓰이 겐지(松井元景, 1716~1782)가 『고매원목보 후편』 5권을 펴내면서 총 9권이 전한다.<sup>22</sup> 일본에는 궁내청(宮內廳)과 에히메대학(愛媛大學) 스즈카시(鈴鹿)문고에 원본이 소장되어 있으며, 국내에는 국립중앙도서관에 조선총독부 고서로 9권이 소장되어 있다.<sup>23</sup> 당시 일본에서도 잘 알려져 있던 『방씨목보』의 형식을 참고하여 ‘元·亨·利·貞’ 4집으로 구성하였다. 이중 첫 권인 「원집」은 5대 당주 마쓰이 겐키(松井元規, 1660~1719)가 일본, 조선, 중국의 문인들에게 받은 서문과 발(跋), 찬문(文贊)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하의 권은 먹의 밑그림 도안이 실려 있다.<sup>24</sup> 그런데 「원집」의 권두 명에 각기 적힌 ‘풍·산·보·묵(豊山寶墨)’ 4자, 그리고 본문 1~2면에 실린 환(丸)형 먹과 음각 용(龍)문양 먹의 찬문을 쓴 사람이 1711년 도쿠가와 이에노부(德川家宣)의 습직(襲職)을 축하하기 위해 파견된 조선통신사 제술관(製述官) 이현(李璣, 1654~1718, 아호

22 실제 목보의 발간은 마쓰이 겐타이의 아버지 대인 1712년부터 1716년 사이 발행한 목보 초본을 모태로 한 것으로, 이후 1742년의 목보 발간 시에 초본의 내용을 종합, 보완했다.

23 서목에 수량이 5책으로 기록된 것으로 보아 만일 오기가 아니라면, 서목에 내록된 장서는 두 가지 목보 중에 후편일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 본의 경우 서목에 기재된 권수와 다른 완질 9권이고, 조선총독부에서 일제강점기에 작성한 왕실도서 관련 서목에서는 동일명의 도서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에히메대학(愛媛大學) 스즈카시(鈴鹿)문고본을 기준으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24 『고매원목보』에 대한 연구로는 林麗江, 「日本古梅園相關墨書之研究—十八世紀中日藝術文化交流之一端」, 『漢學研究』28:2 (2010. 6), pp.127-168; 松尾良樹, 「古梅園の造墨と文化交流」, 『近世文藝』84 (2006), pp. 41-54 참조.

東郭)이다.<sup>25</sup> 도2, 3

이현은 1711년에 파견된 통신사 제술관 중에서도 일본 문인들에게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을 뿐 아니라 상호 '성신(誠信)'의 태도로 사행 중 기온 난카이(祇園南海)를 비롯한 모두 17인의 문인과 승려들의 문집에 서문을 써주는 등 교류에 힘썼다. 마쓰이 겐키에게는 『고매원묵보』 외에 겐키의 시 모음집인 『도안시고(東菴詩稿)』에 서문을 써주었고,<sup>26</sup> 조선 떡 5개도 전했다. 이 내용은 고매원에서 내려오는 『역대고묵부(歷代古墨簿)』 열두 번째 장에 비교적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sup>27</sup> 이 묵보는 그 자체에 실린 내용의 자료적 가치도 물론 높았지만, 당시 일본 내에서 이름이 높았던 조선과 중국의 문사 다수에게 찬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고매원을 국제화하는 데 매우 중요하고 효율적인 홍보물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고매원묵보』는 중국에는 1810년 청으로 가는 무역선에 1권이, 1823년에는 후편을 포함해 보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미 그 이전에 고매원 떡과 묵보에 대한 내용이 청대 문집에 등장한다. 청대 시인 여악(厲鶚, 1692~1752)의 문집 『번산방집속집(樊山房集續集)』에는 “벗들이 조곡림(趙谷林)의 소산당에 모여 류큐(流求)국 관공(官工)인 마쓰이 겐타이의 신각 묵보를 보았다.”<sup>28</sup>라는 내용이 있다. 마쓰이 겐키가 펴낸 묵보와 고매원 떡에 대한 청대 문인들의 정보 교류가 무역선 전래 이전에 이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떡과 묵보의 평가도 청대 문인들 사이에서 상당히 높아서 옹광평(翁光平, 1760~1842)은 『오처경보(吾妻鏡補)』(1814)에서 “떡을 만드는 사람은 여럿이 있으나, 오로지 마쓰이 겐타이의 고매원이 최고로 잘 만든다. 묵보 4책이 있으나 내가 아

25 고매원은 무로마치(室町) 시대 말기 나라(奈良)에서 창업하여 현재까지 이어지는 일본의 대표적 먹공방 중의 하나로, 18세기 이후 조선통신사를 포함한 중국 문인 관료들 사이에서 '풍산향묵(豊山香墨)'이라는 일본식 묵으로 이름이 높았다. 고매원이 조선과 중국의 문인들 사이에서 이름이 높아진 것은 조선통신사와도 교류가 깊었던 고향자이토 진사이의 제자였던 5대 당주 마쓰이 겐키 시기부터이다. 그는 조선 및 중국 사신들과 밀접히 교류하며 많은 필담을 남겼을 뿐 아니라, 일본, 중국, 조선의 고묵을 수집하고 묵보를 만드는 등 독특한 이력을 가졌다. 松尾良樹, 앞의 논문, pp.43-44.

26 이에 대한 기록은 이현의 후손가에 전하는 『동곽집(東郭集)』과 『계림창화집(鷄林唱和集)』, 『한객창화집(韓客唱和集)』에 남아 있다. 『동곽집』의 관련 기록에 대해서는 정우봉, 「東郭 李穰의 通信使行과 日本 인식」, 『고전문학연구』55 (2019), pp.120-128.

27 『역대고묵부』는 5대부터 8대까지 고매원 당주들이 모은 고묵과 명목 비장기(秘藏記)이다. 집안에서만 전해 오던 자료이나, 『奈良古梅園所藏資料の目録化と造墨事業をめぐる東アジア文化交流の研究』(2009~2011, 나라여자대학)의 일부로 고매원 자료가 번역 해제되면서 내용이 공개되었다.

28 “同人集趙谷林小山堂觀流求國官工松元泰新刻墨譜用山谷松扇韻, 王宝平, 「江戸時代における墨文化に関する中日交流—古梅園を中心に」, 『東アジアにおける漢文文化の伝播と流通』講演要旨集(2018. 7. 21), p.14.



직 보지 못하다가 보았다. 그 각이 심히 정묘하여 방우역의 제(묵)보에 뒤지지 않는다.”<sup>29</sup>라고 평했다. 서강(徐康, 1814~?)도 『전진몽영록(前塵夢影錄)』에서 “일본 최고의 문묵(日本國最重文墨)”이라는 평가와 함께 『고매원묵보 후편』을 소개했다.

조선 문인들의 문집에서는 중국과 달리 고매원의 먹이나 묵보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예를 찾기가 어려운데도 승화루에 『고매원묵보』가 소장된 것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하나는 이현을 통해 유입되었거나, 아니면 19세기에 금석학과 문방사보(文房四寶)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그 일환으로 청나라 문인들에게 이름 높았던 이 묵보가 조선 왕실에 뒤늦게 들어왔을 가능성을 상정케 한다. 만일 서목에 기록된 5책이 오기가 아니라면 승화루에 소장된 묵보는 마쓰이 겐지가 펴낸 후편(5책)이었을 것이고, 서목이 발간된 시기를 고려할 때 중국을 통해 수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상에서 서목의 구성을 살펴본 대로 고종 이전 19세기 조선 왕실은 일본에 대한 인식 및 일본과의 물적 교류를 상당 부분 통신사 사행에 의존했기에 수장 의지나 수집 대상의 범위 역시 한정적이었다. 그러나 에도 후기 일본의 출판문화가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일본 내 유향을 근간으로 한 식자층이 배출되면서 점차 청완(淸玩) 문화의 공용자로서 일본을 새롭게 인식하고, 청, 조선, 에도 문인 간의 사신을 매개로 한 물적 교류가 증가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 2. 고종 연간 왕실소장 일본미술 서적의 수장 현황과 성격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랜 시간 문화 전파자의 역할을 담당하던 조선과 수용자 일본의 관계에 결정적 변화를 가져온 것은 1876년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로, 고종 재위 중기 이후 작성된 서목들에는 이러한 변화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표3은 필자가 30여 종의 서목 중 일본 관련 서적만을 추려 정리하는 가운데, 수록 도서에 시기별로 의미 있는 변화 양상을 보여준다고 판단되는 『규장각서목』 b와 c, 『내각장서휘편』, 『집경당포쇄서목』, 『집옥재서적목록』과 『제실도서목록』 6개 서목에 포함된 일본 서적의 내역과 수량을 1913년 참서관분실에서 작성한 『일본판도서목록』과 비교하여 정리한 것이다. 표4는 앞선 표3의 서목에 내록된 도서들의 서지 정보와 수록

29 “墨業此者有數家惟松元泰古梅園所製最佳. 有墨譜四冊余未見僅見其續墨譜. 其刻之精妙雖陳(程)君房方于魯諸譜不過是也”, 王宝平, 앞의 논문, p.15.

표3. 주요 왕실 서목별 일본서 수록 내역(고종 연간-대한제국기)

분류	규장각서목	내각장서위편	집경당포쇄서목	집옥제서적목록	제실도서목록
미술 외 -역사 -지리/지도 -군사 -과학 -신문/잡지	大日本國海圖 1점 萬國航海圖 1권 明治史要 1권 倭曆 1권 沖繩志 5권 海上砲具全圖 1권 興亞公報 9권	萬國航海圖 1권 明治史要 1권 明治新事 8권 使東述略 15책 日本內外案内 2책 日本曆 1권 日本全圖 1책 日本地誌提要 8책 沖繩志 5권 海上砲具全圖 1권 興亞公報 10책	亞細亞東部輿地圖 1장(張)	日本陸軍總制 2권 明治二十三年曆 1권 日本東京新聞 1권	大日本國全圖 1책 大日本國海圖 1책 萬國航海圖 1책 亞細亞東部輿地圖 1장
미술류 -서화 -화보 -도보 -백과 -전시	古鐘考證 1권 工業新書 2권 工學必携 1권 國華餘芳 6권 金類及鍊金術 1권 內國勸業博覽會 1권 大工雛形 2권 大工雛形 2編 2권 博物新編 4권 百工儉約訓 1권 百工新書外篇 3권 百工應用化學編 1권 百工制作新書 5권 染工全書 3권 陸軍服制圖 1권 倭漢三才圖會 79권(不帙) 匠家雛形 2권 匠家雛形 2편(編) 2권 匠家雛形 3편 2권 蒸氣器械圖 1권 蒸氣機械書 4권 蒸氣機關問答 1권 織術工術 1권 樵工雛形 2권	古鐘考證 1권 工業新書 2권 國華餘芳 6집 金類及鍊金術 1권 內國勸業博覽會 1권 大工雛形 2권 大工雛形 2編 2권 陸軍將校馬具圖例 1권(1887) 百工儉約訓 1권 百工應用化學編 1권 百工全書 2권 山陽先生書後 3권 西洋百工新書 2권 西洋百工新書外篇 3권 陸軍服制圖 2권(1887) 倭畫 11片(명승 내입) 匠家雛形 2권 匠家雛形 2권 匠家雛形 2편 2권 匠家雛形 3편 2권 蒸氣器械書 2권 각 4책 織術工術 1책	杜氏徵古畫傳 3본 梅嶺畫譜 3본 名數畫譜 4본 北齋漫畫 15본 竹洞畫稿 2본 漢畫指南 3본 玄對先生畫譜 6본	杜氏徵古畫傳 3권 梅嶺畫譜 3권 名數畫譜 4권 北齋漫畫 15권 日本博覽會目錄 7권 竹洞畫稿 2권 漢畫指南 3권 玄對先生畫譜 6권	杜氏徵古畫傳 3책 北齋漫畫 15책 玄對先生畫譜 6책 內國勸業博覽會 1책 第四回內國勸業博覽會出品目錄 7책
	31종 147권	34종 125권	8종 37본	11종 47권	9종 36책

\* 소설류는 제외함

표4. 주요 서목별 일본판 미술도서 수록 현황 대조표(고종 연간-대한제국기)

번호	서명	필자 이름	발행연도	목록수량 (1913년 기준)	현재 소장처	규a	규b	내가	포	집	제	참
1	古鐘考證	福羽美静	불명	1부 1책	미확인	×	○	○	×	×	×	○
2	改正陸軍服制圖	(일본) 陸軍省	1875	1부 1책	국립중앙도서관	×	×	×	×	○	×	○
3	工業新書	宮岐柳條纂	1880	1부 2책	국립중앙도서관	×	○	○	×	×	×	○
4	國華餘芳	得能良介 編(印刷局)	1881	6부 1책	국립중앙도서관	×	×	○	×	×	×	○
5	金類及鍊金術	錦織精之進 譯(文部省)	明治	1부 1책	국립중앙도서관	×	○	○	×	×	×	○
6	大工棚雛形	大賀範國	1877	2권	미확인	×	○	○	×	×	×	

번호	서명	필자 이름	발행연도	목록수량 (1913본 기준)	현재 소장처	규a	규b	내각	포	집	제	참
7	大工雛形 1-3編	木暮甚七	明治	(각) 1부 3책	미확인 장서각본(13-395)과 동일본일 가능성이 있으나, 서명 및 권수 불일치	×	○	○	×	×	×	○
8	陶磁工篇	錦織精之進(文部省)	1877	1부 1책	국립중앙도서관	×	×	×	×	×	×	○
9	杜氏徵古畫傳	中江松果	1813	1부 3책	미확인	×	×	×	○	○	○	×
10	梅嶺畫譜	幸野煤嶺	1886	1부 3책	국립중앙도서관	×	×	×	○	○	×	×
11	名數畫譜	大原民聲 編集: 淺野思成 筆工	1810	1부 4책	규장각(集玉齋인): 조선총독부고서; 국립중앙도서관에 동일본 소장	×	×	×	○	○	×	○
12	博物新編	合信 (Benjamin Hobson) 著	1875	1부 5책	국립중앙도서관	×	×	×	×	×	×	○
13	百工新書	宮崎柳條 纂	1876	1부 1책	국립중앙도서관	×	○	○	×	×	×	○
14	北齋漫畫	葛飾北齋 畫	1812 ~1878	1부 15책	국립중앙도서관	×	×	×	○	○	○	○
15	山陽先生書後	賴山陽 著	1832	3책	규장각	×	×	○	×	×	×	×
16	歷代名公畫譜	谷文晁	1798	1부 4책	장서각	×	×	×	×	×	×	○
17	染工全書	宮里正靜 譯	1878	1부 3책	국립중앙도서관	×	○	×	×	×	×	○
18	倭漢三才圖會	寺島良安 撰	1713	1부 79권	장서각 李王家圖書之章	×	○	×	×	×	×	○
19	印刷術及石版術	大槻文彦 譯(文部省)	1883 ~1886	1부 1책	국립중앙도서관	×	×	×	×	×	×	○
20	雜工雛形	落合範圍 編	1849	1부 2책	국립중앙도서관	×	○	×	×	×	×	○
21	匠家雛形 1~3編	本林常將 編	1876	각 1부 3책	국립중앙도서관	×	○	○	×	×	×	○
22	第二回內國勸業博覽會 場案内	博覽會事務局	1881	1부 1책	미확인	×	○	×	×	○	×	○
23	第四回內國勸業博覽會 出品目錄: 공업	博覽會事務局	1895	1부 3책	미확인	×	×	×	×	○	×	○
24	第四回內國勸業博覽會 出品目錄: 광업, 야금술	博覽會事務局	1895	1부 4책	미확인	×	×	×	×	○	×	○
25	第四回內國勸業博覽會 出品目錄: 교육, 학술	博覽會事務局	1895	1부 5책	미확인	×	×	×	×	○	×	○
26	第四回內國勸業博覽會 出品目錄: 기계	博覽會事務局	1895	1부 6책	미확인	×	×	×	×	○	×	○
27	第四回內國勸業博覽會 出品目錄: 농업	博覽會事務局	1895	1부 7책	미확인	×	×	×	×	○	×	○
28	第四回內國勸業博覽會 出品目錄: 미술, 공예	博覽會事務局	1895	1부 8책	미확인	×	×	×	×	○	×	○
29	第四回內國勸業博覽會 出品目錄: 수산	博覽會事務局	1895	1부 9책	미확인	×	×	×	×	○	×	○
30	製作新書	宮崎柳條 抄譯	1877	1부 3책	국립중앙도서관	×	×	×	×	×	×	○
31	竹洞畫稿	竹林成昌(竹洞) 畫	1812	1부 2책	국립중앙도서관	×	×	×	○	○	×	○
32	蒸氣器械圖	海軍兵學竹寮 譯	1869	1부 4책	규장각	×	○	○	×	×	○	○
33	蒸氣機關問答	笠原賢藏 纂譯	1879	1부 1책	국립중앙도서관	×	○	○	×	×	×	○
34	織術工術	畢古厚 著; 西村茂樹 譯	1873	1부 1책	국립중앙도서관	×	○	○	×	×	×	○
35	鐵園畫談	佐久間健壽	1907	1부 1책	국립중앙도서관	×	×	×	×	×	×	○
36	漢書指南	河村文鳳 渡邊瑛	1410	1부 3책	규장각; 국립중앙도서관	×	×	×	○	○	×	○
37	玄對先生畫譜	渡邊瑛	1804	4부 6책	규장각(집옥재인); 국립중앙도서관	×	×	×	○	○	○	×

\* 목록은 가나다순임.

\*\* 규a(표1-4-6), 규b(표1-8), 내각(표1-11), 포(표1-17), 집(표1-19), 제(표1-24), 참(참사관실 목록)

현황을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도록 만든 대조표이다. 두 표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고종 연간 조선 왕실에 새롭게 들어온 일본 (미술) 서적의 수량과 흐름, 나아가 수장 공간 별 수집 도서의 성격 차이를 좀더 쉽게 파악할 수 있다.<sup>30, 4</sup>

두 개의 표를 참조하면 기록상의 고종 재위 초기 혹은 그 이전인 19세기까지 조선 왕실의 일본 서적 및 서화의 구입이나 수장은 중국과 비교할 때 수량과 내용이 매우 빈약하다. 그러나 이태진과 장영숙의 선행 연구를 통해 1880년대 이후부터 재위 말기까지 동도서기(東道西器)적 개화정책 추진을 위한 참고자료로써 신도서를 매우 적극적으로 구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sup>30</sup> 1880년대 이후로 구입이 급증한 일본판 서적 지리, 역사 및 기술서와 더불어 백과사전식 도보류의 미술 서적 역시 일명 개화 도서의 일부로서 수집되어 규장각 서고에 수장되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고종 재위 말기 작성된 『집경당포쇄서목』, 『집옥재서적목록』과 『제실도서목록』에는 이들 개화 서적을 비롯하여 1879년에서 1881년 사이 수신사와 조사시찰단이 작성한 보고서와 서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확인한 결과 관련된 서적 중 보고서와 지도류 일부는 『북한책목록(北漢冊目錄)』에 상당수가 내록되어 있었다. 북한산성 내 행궁의 서고는 고종 3년(1866) 병인양요로 인해 외규장각에 보관하던 전적과 물품이 소실되자 왕실 서적과 어보의 수장고로 사용되었다.<sup>31</sup> 『북한책목록』은 북한행궁 서고에 보관되던 왕실 서적과 어보를 1909년 통감부의 주도 하에 종친부로 이관하면서 작성한 것이다. 현재 고종 재위 말기 북한행궁 서고의 공간적 기능에 대해서는 상세한 연구나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집경당, 집옥재, 제실도서'로 이어지는 서목에서 사라진 서적들이 1914년에 작성된 『이왕가도서실장서목록』에는 대부분 다시 수록된 것으로 보아, 1908년 제실도서관과 이왕가박물관의 설치를 계획하면서 외교·정치와 관련된 서적들은 일시적으로 북한산 서고에 두고, 도보류는 박물관 도서관 등지로 일시 이동시킨 것으로 추정된다.<sup>32</sup>

30 관련된 연구로는 이태진, 「1880년대 고종의 개화를 위한 신도서 구입사업」, 『고종시대의 재조명』 (태학사, 2000); 장영숙, 「『내하책자목록』을 통해 본 고종의 개화 관련 서적 수집 실상과 영향」, 『한국민족운동사연구』58 (2009); 장영숙, 「『집옥재서목』 분석을 통해 본 고종의 개화 서적 수집 실상과 활용」, 『한국근현대사연구』61 (2012)이 대표적이다.

31 북한행궁의 공간 구성 및 기능에 대해서는 황정연 등의 선행 연구에서 상세히 다루지 않았다. 현재 건축공학과에서 나온 1건의 석사논문을 통해 일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나신균, 「인조~숙종대 행궁의 배치와 공간이용에 관한 연구」(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pp.116-117.

32 장서각에 소장된 일본판 고서에 대해, 이혜정은 2011년 석사학위논문에서 '박물관장(博物館章)'이 날인된 도서들이 1914년 『이왕가도서실장서목록』에 포함된 사실을 토대로 1908년부터 1914년까지 이왕직

또한 고종 재위 초기 규장각에 『고종고증(古鐘考證)』, 『국화여방(國華餘芳)』과 같은 일본의 고고 및 백과 도보가 소장되고, 재위 말기 집경당과 집옥재에는 백과 도보류 대신 『한화지남(漢畫指南)』, 『젠다이(玄對) 선생화보』, 『지쿠도화고(竹洞畫稿)』와 같은 감상용에 가까운 남종 서화 화보들이 소장된다. 정치적 공간인 규장각과 궁중 도서관 및 사신 접대라는 사적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던 집경당과 집옥재에 일본미술 서적이 소장되었다는 사실은, 한정된 예이기는 하나 개화기 '미술'의 개념이 산업공예적 관점의 박물학적이고 실용적 대상으로서의 '미술'과 애완, 감상을 위한 사적 대상으로 '서화' 개념을 연장한 '예술'로서의 '미술'이 이중적으로 추구되는 양상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 III. 구한말 왕실소장 일본미술 서적의 유형과 미술사적 의미

현재까지의 연구 조사 결과 구한말 왕실에서 구입 또는 기증을 통해 소장한 일본 판 '미술' 서적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박물(博物)·식산(殖産)의 대상으로 수집된 '미술' 서적이며, 다른 하나는 애완과 감상을 위한 '예술'로서 수집된 '미술' 서적이다. 서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첫째 유형에 해당하는 서적은 다시 1군: 『고종고증』, 『국화여방』과 같은 고고(고기물) 도보류, 2군: 삽도가 포함된 전통적 백과사전인 『왜한삼재도회(倭漢三才圖會)』와 『금류 및 연금술(金類及鍊金術)』, 『도

자공편(陶磁工篇)』, 『인쇄 및 석판술(印刷術及石版術)』, 『박물신편(博物新編)』 등 근대 백과사전에 해당하는 『백과전서(百科全書)』류, 3군: 내국권업박람회(內國勸業博覽會)를 비롯한 박람회 관련 자료집과 보고서류로 분류할 수 있다. 이중 내국권업박람회 자료는 국내의 연구를 통해 비교적 다루어졌다고 판단하여 본고에서는 생략하고, 1군과 2군에 포함된 자료와 내국권업박람회의 관계성에 초점을 맞추어 성격과 의미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4  
후쿠바 요시즈  
『고종고증』 부분  
메이지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장원계에서 관리하던 박물관 도서들이 1914년 12월 이후 이왕가도서실로 편입되었다고 추정했다. 이해 정, 앞의 논문, pp.14-18.

## 1. 고기물 도보와 도집(圖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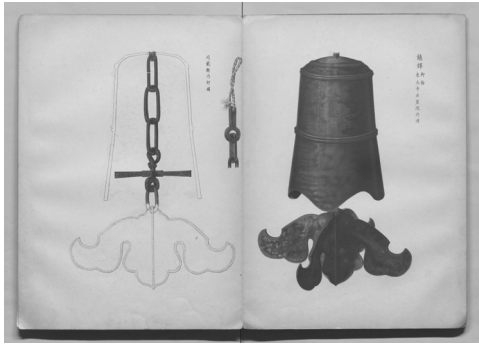
『고종고증』은 일본의 국학자이자 메이지 천황의 시강(侍講)을 지낸 후쿠바 요시즈(福羽美静, 1831~1907)가 저술한 일본의 동탁(銅鐸) 도보이다.<sup>34</sup> 책의 크기는 26×18cm이고, 표지를 뺀 36면에 일본 동탁 유물 12점의 크기와 발굴 장소 및 특징을 실측도면과 함께 실었다. 이 책은 현재 국내에는 소장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일본 국립 국회도서관 헌정(憲政)자료실에 시시도 다마키 관계문서(宍戸磯関係文書, 351)로 소장되어 있다. 내지 첫 면에 “日本侍讀學士 福羽美静 鑑古鐘說 鄭永寧 譯錄”으로 필자와 역자를 명기했으며, 이후 본문은 일본의 사찬(私撰) 역사서인 『부상략기(扶桑略記)』에 적힌 고 동탁과 관련된 기록을 시작으로 일본의 주요 동탁 유물에 대한 감정 및 조사 내용을 기록했다. 또한 책 말미에는 동탁을 한역(漢譯)하는데 호고가 정영녕의 의견에 따라 편의상 ‘종(鐘)’으로 용어를 사용한다는 부기가 필사되어 있다. 일본 내에서도 이 책을 소장한 자료관이 드물고, 내지도 얇은 종이에 필사한 것을 부착한 형태로 보아서 대중 판매를 위해 제작된 것이 아니라고 추정된다. 개화 서적의 수집에 열중하던 1880년대 규장각에 왜 이러한 고기물 도보가 수장되었을까? 『고종고증』류의 연구서에 가까운 고기물 도보가 고종 연간 왕실에 수장된 배경을 이해하려면 고종이 수신사와 조사시찰단을 파견한 시점에 일본 메이지 정부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sup>33</sup>

구미 만국박람회의 출품으로 촉발된 메이지 정부의 ‘고기물 보존’에 대한 필요성의 자각은 “고고이금(考古利今)을 통한 식산흥업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고물(古物)의



5  
니나가와 노리타케  
『관고도설도기지부』  
1876  
미국 게티연구소

33 두 서적이 조선 왕실에 유입된 배경에 대해서는 1881년에 파견된 조사시찰단의 활동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사시찰단은 조선의 자강과 개화 정책에 일본의 문물제도를 참고하고자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일본의 각처를 나누어 시찰한다. 12명의 시찰단원 중 문부성의 조사보고를 맡은 조준영은 1881년 당시 후쿠바가 교장으로 재직하던 동경여자사범대학을 방문하고, 아울러 내국권업박람회와 관고미술회(觀古美術會) 전시를 답사했다. 그 무렵 후쿠바는 공무 이외 개인적으로 국수(國粹)적 성격의 고기물 보존 단체인 고코샤(好古社)를 조직하고, 『호고잡지(好古雜誌)』를 발간하고, 회원들의 고서화 수장품을 대상으로 감상회를 열었다. 흥미로운 것은 전람회 장소가 관고미술회와 같은 우에노(上野) 공원 안의 류치카이 미술진열관이었고, 전시의 성격과 목적 또한 관고미술회전과 유사했다는 점이다. 이를 고려할 때 조준영이 여자사범학교와 류치카이, 고코샤 모두와 관련 있던 후쿠바 요시즈를 만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과정에서 메이지 정부 초기의 고미술 정책의 참고물로 『고종고증』과 『국화여방』을 기증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된다.



6  
 도쿠노 료스케  
 『국화여방』  
 1879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보호와 연구”라는 목적에 따라 정부 관료와 수출업자, 상공회사, 국학자 등을 결집시켰다. 이들이 결성한 류치카이(龍池會) 이하 ‘호고’, ‘관고(觀古)’, ‘집고(集古)’라는 이름을 단 다양한 반관반민의 단체들은 내국권업박람회의 주체적 세력이 되었다. 또한 이들은 1870년대 후반부터 1880년대에 걸쳐 ‘고고(考古)의 실증적 증거’로서 고물을 집대성하고 전문화한 『상고도록(尙古圖錄)』(1875), 『관고도설도기지부(觀古圖說陶器之部)』(1876)<sup>34</sup> 도5와

같은 기물 사생을 기초로 정치하게 채색한 고기물 도보를 연이어 출간했다. 이러한 흐름에서 출간된 도보가 규장각으로 유입된 『고종고증』과 『국화여방』이다.

『국화여방』은 1879년 인쇄국 국장 도쿠노 료스케(得能良介, 1825~1883)가 고기물 보존을 위한 고적 조사 차원에서 5개월간 이탈리아의 판화가 에도아르도 키오소네(Edoardo Chiossone, 1833~1898) 등과 함께 일본의 각 지방을 답사하고 만든 석판화집 3종 중 하나이다.<sup>36</sup> 소소인(正倉院) 유물을 서양화의 명암법과 원근법을 사용해 사진보다 더욱 사실적으로 묘사한 정교한 다색 석판화집이다. 총 25매의 도보로, 책 제목의 ‘국화(國華)’는 ‘나라의 보물’을 ‘여방(余芳)’은 ‘후세에 남아 기릴 뛰어난 작품’을 의미한다. 간행 목적은 책의 서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도서명과 같이 후세에 기릴 나라의 보물인 고기고화(古器古畵)를 보고, 각지의 풍속과 인정을 알아 업무에 참고로 삼기 위한 모범적 자료집의 제작에 있었다.<sup>35</sup> 실제 당시 최고 기술과 예산을 들여 제작한 선구적인 고급 미술 도보로서 사진에 버금가는 사실성이 돋보인다. 이 두 서적은 모두 1873년 일본이 빈 만국박람회에 출품 준비를 하면서 자성하게 된 민족의 문화자원으로서 ‘고기물’에 대한 보존과 연구 조사 지원이라는 메이지 정부의 중요 시책을 배경으로 제작되었다. 전근대 ‘고기물’과 근대 산업을 연결하는 고리로서 ‘공예미술’에 대한 당시의 시각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이하 백과사전류의 도보와도 성격이 이어진다.

34 『관고도설도기지부』에 덧붙인 기록에 따르면, 도기의 그림은 석판화가 가메이 시이치(龜井至一)가 밑그림을 그렸고, 가와바타 교쿠쇼(川端玉章)가 채색했다.

35 『국화여방』에 대해서는 2007년 국립인쇄국(國立印刷局)에서 개최한 《국화여방의 탄생(國華余芳의 誕生)》전의 자료 참조. [https://www.npb.go.jp/ja/museum/tenji/kako/pdf/tenji\\_h18\\_02.pdf](https://www.npb.go.jp/ja/museum/tenji/kako/pdf/tenji_h18_02.pdf)(2021. 1. 14 검색).

## 2. 유서(類書)와 백공신서

『왜한삼재도회』는 익히 잘 알려진 바와 같이 18세기 초에 제작된 중국 명대 왕기(王圻)의 유서 『삼재도회(三才圖繪)』를 모본으로 데라시마 료안(寺島長安)이 저작한 일본판 『삼재도회』이다. 중국 『삼재도회』와 속집을 합한 분량과 동일한 105권 81책으로 구성되고, 형식도 기본적으로 중국본을 차용했다. 하지만 부문에서 천(天)·지(地)·인(人)의 순서를 천·인·지 순으로 조정했으며, 『삼재도회』에 비해 세분화한 것이 특징적이다.<sup>36</sup> 『왜한삼재도회』가 조선에 들어온 시기는 특정할 수 없다.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에 걸쳐 이덕무(李德懋, 1741~1793), 서유구(徐有集, 1764~1845), 이규경(李圭景, 1788~1856)이 이를 읽고 언급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어서 조선통신사의 1763년 계미사행 무렵 수입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sup>37</sup> 『왜한삼재도회』는 현재 장서각에 79권이 소장되어 있고, 『규장각서목』에 내록된 바와 같이 전질에서 2부가 누락된 상태이다. 『삼재도회』는 한·중·일 모두에서 19세기 동아시아 지식 교류사의 측면에서 가장 즐겨 연구되었다. 그러나 필자는 100년의 시간차를 두고 사신으로 보낸 이들이 들여온 두 개의 백과사전이자 번안서인 『왜한삼재도회』와 『백과전서』가 1880년대 왕실 서고의 장서로서 공존했던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이것의 의미를 메이지 박람회 정책과 관련하여 생각해 보고 싶다.

1881년 무렵 수신사를 통해 새롭게 유입된 『금류 및 연금술(金類及鍊金術)』, 『도자공편(陶磁工篇)』, 『인쇄 및 석판술(印刷術及石版術)』, 『박물신편(博物新編)』은 일본의 문부성에서 영국 빅토리아 시대의 계몽서인 『윌리엄 챔버스의 계몽서 *Chambers's Information for the People*』을 모본으로 만든 번역서인 『백과전서』 시리즈 중 일부이다. 『백과전서』는 문부성의 주도로 1873년부터 1883년까지 10년에 걸쳐 발간되었는데, 91개의 주제별로 분판하여 발행한 문부성본 이외에 20권을 합판하여 번각한 유린도(有隣堂)판 등이 있다.<sup>38</sup>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백과전서』는 유린도판이다.

36 龍澤武, 「일본의 유서(類書)에서 백과사전에 이르기까지-18세기 『倭漢三才圖會』를 중심으로」, 『살삼문명연구』2 (2009), pp.128-129.

37 조선 후기의 지식인들이 『왜한삼재도회』를 인용한 기록에 대해서는 안대회, 「18·19세기 조선의 백과전서파와 『화한삼재도회』」, 『대동문화연구』69 (2010) 참조.

38 菊池重郎, 「文部省における『百科全書』刊行の経緯について」, 『日本建築学会論文報告集』61 (1959), pp.112-113.



1881년 수신사를 통해 유입된 서양식 '백과전서'와 '백공신서'가 당시 '미술 서적'으로 인식된 데는 메이지 초기 정부 관료와 지식인들이 '미술'을 장르적 개념이 아닌 (미적) '기술'이라는 의미적 요소에 초점을 맞추어 인식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류치카이가 펴낸 1880년 회보 『공예총담(工藝叢談)』 1호에는 미술의 정의를 “서구에서는 미술의 구역을 제형상(製形上)의 미술인 ‘화, 서, 조각, 건축’과 발음상의 미술인 ‘음악, 시가’ 두 개로 나눈다. … 그 외 동판술, 석판술, 조경술(造園術)과 춤도 미술에 속한다”라고 부기한다.<sup>39</sup> 이러한 의미에서 ‘미술’의 두 가지 중요한 구성체가 되는 물적 요소와 기술의 속성을 모두 내포한 공예가 기술과 예술의 접점에 있는 중요한 식산공업의 원천이자, 민족정신의 보고로서 추구되었던 것이다. 규장각에 소장된 『왜한삼재도회』와 『백과전서』는 메이지 초기 박물학과 식산공업의 관점에서 수집·추구된 공예미술의 두 가지 얼굴, ‘도(道)’와 ‘기(器)’, ‘혼’과 ‘재(才)’, 정신으로서의 ‘미’와 도구로서의 ‘술(術)’을 상징한다고 하겠다. 또한 공진회와 박람회는 책에 실린 시각 텍스트들의 실제적·물적 증거물을 전시함으로써 ‘미술’을 체화·학습하는 제도적 공간이었다는 점에서 고기물-백과사전-박람회는 1910년대 이후 미술전람회와는 맥락이 다른 연결고리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 IV. 맺음말

본 연구는 그간 방대한 규모와 더불어 자료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연구가 활성화되지 못한 일본판 조선 왕실 소장 도서에 대해 ‘미술’ 서적을 중심으로 현황과 성격을 고찰한 것이다. 18세기까지 왕실이나 조정에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던 일본판 도서들은 고종 연간을 거치며 수적으로 급증한다. 내용적으로는 경부(經部)에서는 교육적 성격이 강한 사서(四書)류의 서적이, 사부(史部)에서는 통감부 설치 이후 일본사와 관련한 별사나 전기, 지리류 서적이 주종을 이루는 가운데, 금석학과 관련된 고문 도서가 함께 수집된 점이 흥미롭다. 그러나 구한말 수량과 종류가 가장 급증한 부문은 자부(子部)의 예술류, 보록류 및 잡류에 속한 다양한 시각 이미지가 포함된 도서였다. 이들 자부에 속한 일본판 도서들은 개화기 식산공업의 일

39 柳田さやか, 「明治期の竜池会・日本美術協会における書の位置」, 『書学書道史研究』25 (2015), p.110.

환으로 장려된 공예산업의 종류인 금속, 목칠, 자수, 매듭공예와 관련한 기술서 및 도안집과 호고 취미에서 시작하여 사적인 감상과 창작물로 활용된 화보류로 분류할 수 있다. 19세기 이후 동아시아 전반에 널리 퍼진 문사들의 서화고동 취미를 반영하는 후자에 해당하는 도서들은 탈아입구(脫亞入歐)를 통한 문명개화와 서구화가 본격적으로 추구된 1910년 이후로도 상당 기간 수집이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이는 수집의 주체라 할 수 있는 왕실 및 한일 개화파 주요 관료들이 추구하던 이중적 공사(公私) 개념, 즉 사적 영역에서 중세적 취미성과 공적 국가 제도 속의 탈아적 서구화의 추구가 공존하는 근대의 특수한 사회문화 현상과도 관련된다. 또한 실용적 측면에서는 메이지 전기의 박람회 문화산업정책과의 관련성 속에서 서구와 차별화하는 '동양성'의 원천으로서 수집, 추구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지면의 한계로 인해 후자에 속하는 집경당과 집옥재에 소장되었던 『한화지남』, 『지쿠도화고(竹洞畫稿)』, 『역대명공화보(歷代名公畫譜)』, 『명수화보(名數畫譜)』, 『두씨징고화전(杜氏徵古畫傳)』, 『산요선생서후(山陽先生書後)』, 『호쿠사이만화(北齋漫畫)』 7종의 화보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지 못했다. 이들 '미술백공(美術百工)의 연원'으로 추구되었던 '서화' 화보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 좀더 면밀한 내용을 고찰하고자 한다.

#### 주제어 Keywords

대한제국 Empire of Korea, 고종 King Gojong, 규장각목록 *Kyujanggak-moklok*, 내하책자목록 *Naeha-chaekjamoklok*, 승화루서목 *Seunhwalu-seomok*, 왕실 자료 royal collection, 이왕가도서실 Joseon Royal Family Library, 일본판 도서 japanese books, 집옥재 Jibokjae, 공예미술 craft art

투고일 2021년 3월 30일 | 심사일 2021년 4월 23일 | 게재확정일 2021년 5월 12일

사료

『高宗實錄 *Gojongsilok*』

『奎章閣書目 *Kyujanggak-seomok*』

『承華樓書目 *Seunghwaru-seomok*』

『李王家圖書室藏書目錄 *Joseon Royal Family Library Jangseo-moklok*』

『集玉齋書籍目錄 *Jibokjaeseojeok-moklok*』

논문

박현순 Park, Hyunsoon, 「『규장각서목』을 통해 본 규장각 장서 Examination on the Collection of Books in Gyujanggak through the Gyujanggak Seomok, 『한국문화 *Korean Culture*』 70, 2015, pp.41-52

이혜정 Lee, Hyejung, 「장서각 소장 일본 고서의 서지적 분석 Bibliographic Analysis of Ancient Books of Japan as Held in Jangseogak Library,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M.A. Thesis,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2011.

황정연 Hwang, Jungyon, 「高宗 年間(1863-1907) 宮中 書畫收藏의 전개와 변모양상 The Development and Evolution of Royal Art Collections during King Gojong's Reign(1863-1907), 『美術史學研究 *Korean Journal of Art History*』259, 2008, pp.84-96.

林麗江 Lin Li-chiang, 「日本古梅園相關墨書之研究—十八世紀中日藝術文化交流之一端 Ink Catalogues by Kobaien: Cultural Exchange and Interaction between 18th-Century China and Japan, 『漢學研究 *Chinese Studies*』28:2, 2010, pp.127-168.

松尾良樹 Matsuo Yoshiki, 「古梅園の造墨と文化交流 Ink Making and Cultural Exchange of Komaewon, 『近世文藝 *Modern Literature*』84, 2006, pp. 41-54.

柳田さやか Yanagida Sayaka, 「明治期の竜池会・日本美術協会における書の位置 The Position of Calligraphy in the Ryūchikai and Japan Art Association during the Meiji Era, 『書学書道史研究 *shogaku-shodoushi genkyu*』25, 2015, pp.109-123, 175.

# Study on the Joseon Royal Collection ‘Art’ Books Published in Japan at Empire of Korea Period

ABSTRACT

Hwang, Binna

Jangseogak(藏書閣) of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and Kyujanggak(奎章閣)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contain more than 30 catalogs of a number of classics from the Joseon Dynasty from the reign of King Gojong(高宗) to the Japanese occupation. Among them, unlike the Korean and Chinese editions of which the bibliography is arranged as a separate book and the entire contents of the book can be confirmed, a comprehensive investigation involving the two institutions has not been conducted on the Japanese books belonging to the former Joseon royal family. This study examines the general condition,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books of the Joseon royal family published in Japan, focusing on the ‘art’ books.

According to the research results, many of the Japanese books purchased by the royal family or stored through donations are largely related to the *hogo*(好古) and Literary and nobleman taste that have been prevalent in East Asia since the 19th century. This reflects the antinomy coexistence phenomenon of dual values, such as the *Dongdoseogi*(東道西器), which many of the bureaucrats of Korea and Japan had in the modern era.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hat a more advanced discussion will be possible through individual in-depth research on Japanese art books owned by the royal family.